

Vol.225

2021 01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꽃제비 탈북자 출신
디모데 형제 이야기

박해와 선교현장

중국 (China)

현장스토리

중국 MBB 아만다, 압둘 이야기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시다!”

어느덧 낯설어진 그리스도

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역을 해오면서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아주 의아하고 어이없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그리고 각 성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낯설어지는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다닌지도 오래되었고 교회 역시 많은 일을 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낯설어지고 그 자리에 대신 다른 무엇인가가 놓여 있습니다. 신자 개인은 자신의 활동과 의지, 사람들과의 사귄, 그리고 출처도 불분명한 자기 계발에 놓여있고, 교회는 그러한 신자 개인의 요구와 자의식을 지지하기 위한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활동들로 채워집니다. 많은 성도와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에게도, 교회에게도 점점 낯설어지고 희미해져만 갑니다.

몇 년 전 한국 기독교계에 소개된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가 쓴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Christ Our Life)"이란 책에서 첫 페이지 맨 첫 줄에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쓴 이 한 줄이 마음을 줄곧 사정없이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리브스는 그 책의 저술 목적을,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주 예수님을 힘써 배우게나.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열 배로 주목해 보시게나.....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감각,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한 감미롭고도 탁월한 감각으로 자네 영혼을 부디 가득 채워 보시게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선언인 동시에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이야말로 코로나 시대 1년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자랑

하던 국가방역시스템도 붕괴되어 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들과 교제가 흩어져 버리고 터마져 무너져 버린 모든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다시 듣고 회복되어야 하는 최우선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사랑 받는 독생자요 천사들의 노래요. 창조의 논리요, 위대한 경건의 신비요,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도록 본래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제외한 모든 것으로 이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다지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은혜", "성경", "복음" 등과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와 상관없이 이런 데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관심을 얼마든지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나뭇조각에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이로운 일들, 중요한 개념들, 아름다운 발견과 같은 것들조차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를 가장자리로 끊임없이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사역을 묘사하기 위한 소중한 개혁주의 신학적 개념들조차도 그 자체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하여, 마침내 예수는 단지 거대한 벽을 이루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토대요. 신앙이라는 왕관에 박힌 보석은 어떤 개념이나 체계, 사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메뉴 가운데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화제나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나 체계가 제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은혜롭거나', 혹은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기독교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얼마나 기독교적인지는 오직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는 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좌우합니다.

저는 감히 우리 기독교의 문제와 그릇된 사고의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망각하거나 도외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명백히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과 사고는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정초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토마스 찰머스(Thomas Chalmers)는 그 시대나 이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책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기 도덕성이나 자기 훈련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탁월성을 더욱 더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낸다. 그들은 이 세상보다 더욱 매력적인 어떤 것, 즉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봄으로써만 이 세상을 이겨낸다!"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world is not with morality or self-discipline. Christians overcome the world by seeing the beauty and excellence of Christ.' They overcome the world by seeing something more attractive than the world: Christ)

전세계 고난받는 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오픈도어 가족들과 동역자들 모든 분들에게도 코로나 시대 1주년 새 해를 시작하면서 꼭 마음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꽃제비 탈북자 출신 디모데 형제 이야기
- 07 박해와 선교현장 - 중국
- 12 중국스페셜 - 중국 사역자에게 듣다
- 17 현장스토리 - '점쟁이'에서 '전도자'로 "아만다" 이야기
중국 MBB "압둘" 이야기
- 20 사역보고 - 중앙아시아의 코로나19 구호 이야기
- 22 희망의선물2021 캠페인 - 성경 한권의 힘
- 23 한국오픈도어연중캠페인

2021년 01월호 | 통권 225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꽃제비 탈북자 출신 디모데 형제 이야기

“내 마음은 얼어붙었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디모데(가명) 형제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살았고, 이후 두 번이나 북한에서 탈출하려다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자유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영국에 살고 있으며 북한 선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있던 작년, 디모데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짓눌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을 위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1945년 10월 10일 창립되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집권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창당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을 ‘나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당이 존재하는 한 모든 것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인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을 버리고, 핍박하고, 굶겨 죽였습니다.

나는 이 집권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살다가 두 번이나 탈북을 시도하였고, 희망과 꿈을 좇은 것 때문에 네 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망이나 꿈은 누구의 삶에서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기 힘듭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닫은 것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은 탈북하셨지만 나까지 탈출시키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순간, 어머니는 기차에 올라 내게 손을 흔들고 계셨고, 나는 그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아버지를 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북한에서 몇 년 동안이나 길거리에서 생활해 마음이 얼어붙은 탓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

착한 지 몇 년이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고난으로 얼어붙은 마음

북한에서 사는 것,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김씨 일가에 대한 초기 세뇌교육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신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해야 했고, 절을 해야 했으며, 그들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어린 나이에 완전히 닫혔습니다. 김씨 일가의 억압적인 정치와 박해,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량 기아와 죽음으로 인해 식량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나의 부모님 - 나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소망은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만, 나는 북한 사회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적대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군대나 공산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인 북한은 모든 젊은이들의 희망과 꿈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의 생존 본능은 중국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조국, 친구, 이웃, 그리고 많은 추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나의 희망이 눈물, 슬픔과 섞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 나는 많은 것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적 없는 빛과 풍부한 음식,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패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빛’은 나에게 민주주의적 자유, 기회,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북한 사람들은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을 무릅쓰는데, 마냥 송환된다면 수감되거나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몽골 국경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말 못할 잔학함과 끔찍한 고문, 비인간적인 행위

가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할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민주주의의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는 체포되어 상하이 국제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상하이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내 가슴속에는 깊은 어둠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로 송환되는 사람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공개처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은 상하이 경찰서에서 수면제 과다복용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북한정권에 의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

그때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감방에 작은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내 방 수감자 중 한 명이 남한의 폭력배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성경을 읽고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자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소원을 빌고, 끝날 때 ‘아멘’ 이라고 말해라.”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의 절박한 처지 때문에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유와 해방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 당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존재하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좁고 어둡고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의지할 데가 하나님 말고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스무 번도 더 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신다면, 그 보답으로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북한으로 송환되어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얼마 후에, 두 남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북한의 요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국제단체에서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천사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나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적 청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이 북한 대신 제3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성취되고 부여된 자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부여될 수 없다. 그것은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내 인생에도 해당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두 번이나 북한을 탈출했고, 감옥생활을 견뎌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생존을 위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자유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조차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외에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수용소 감옥들을 허물고, 수만 명의 기독교인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투옥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북한이 모든 사람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 땅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는 그것이 자유 북한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75년의 분단이 끝나고 남북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는 꿈입니다. 새로운 북한과 통일한국의 아름다운 진주가,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든 북한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선노동당이 기아와 억압, 박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과 한국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내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이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빵과 국, 옷들을 주며, 나의 처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배낭에 빵과 수프를 가지고 다니며 나누어 주는 국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내 민족과 조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박해와 선교현장

중국 China

1949-2019

사진: 중국인민공화국 건국70주년 기념 거리장식

인구: 1,420,062,000명

주요 종교: 무신론(32%), 불교(17%), 기독교(7%), 기타종교(31%)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97,200,000명(7.0%)

기독교박해 순위: WWL2020- 23위, WWL2019- 27위

기독교박해 지수: 70점

주 박해 요인: 공산당과 공산주의 정권, 독재적 권력, 종교적 소수민족공동체(무슬림, 불교)

중국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중국은 공산당의 지배를 보존하려는 목표 때문에 종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한다. 특히 교회는 공산당과 정부당국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는 최대의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산당과 정부는 공산주의의 쇠퇴를 가져온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한 가지 요인이 기독교인들과 같은 사회집단이라고 본다. 중국에서 정부고위직에 오르려면 반드시 공산당원이어야 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반종교적 정책을 수행한다. 공산주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주민들에게 기독교인 및 소수부족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고발하도록 권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생활 속에서 압박을 받는다.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된 ‘신종교사무조례’로 크리스천과 교회는 더 많은 문제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허가된) 교회나 미등록 교회를 막론하고 전체 교회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사회 전 분야에서 자유가 축소되었다. 국가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교회에 대해 점점 더 큰 규제가 직접적으로 생겨났다. 특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으로 명명한 ‘시진핑

사상'을 만들어 이것을 미디어가 선전하고 대학들에 특별연구기관을 개설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주입하고 있다. 사실상 이 공산당 노선에 순응하지 않으면 다양한 레벨의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 종교에 대해서도 '중국화'를 내걸고 있다. 공산당은 특별 앱(App)을 만들어 이용자를 감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사회신용시스템(SCS)'이 전면 실시되면서 안면인식 뿐 아니라 걸음걸이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졌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다. 어떤 짓도 축하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 중국 개신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회장인 쉬 샤오홍은 2019년 3월에, '서구가 기독교를 이용해 중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외세를 지지하고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에서 어떤 종교를 믿건 오직 한 가지 기준은, 공산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교회에 대한 공산당의 우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교회지도자들에게 성경해석을 '사회주의 핵심가치들'에 따라서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상황 또한 지역마다 매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크리스천들에 대한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무슬림 또는 불교 소수 민족공동체의 크리스천들은 세계의 모든 종교부족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핍박을 당한다.

“신종교사무조례”의 몇 가지 항목 예

- 1) 시민들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시민들에게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 ->실제적 영향: 어떤 곳에서는, 소책자를 나눠주거나, 열린 공간에서 복음주의 모임을 갖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2) 모든 종교 단체는 i) 공산당이 통제하는 국가 제재 종교 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ii) 허가된 경우, 종교 모임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

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승인이 없으면 모든 종류의 종교모임(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모임 포함)은 불법이다. ->실제적 영향: 가정교회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당국은 교회를 폐쇄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원하면 목사/성도를 체포할 수 있다.

- 3)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종교단체는 헌법, 법률, 규정,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핵심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실제적 영향: 목사와 교회 단체들은 지방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교회에서 십자가보다 더 높이 국기를 올리고 교회 예배 전에 국가를 부르도록 압력을 받았고, 한 지역에서는 예수님 사진을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4) 모든 종교는 독립과 자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와 종교업무들은 외세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적 영향: 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는 없으며, 해외에서(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계될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중국 신자들을 위한 성경훈련은 해외 기독교회나 단체에서 소집될 수 없다. 지난 12개월 동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가정교회를 인도하거나 돕는 사역을 하므로, 중국 전역의 도시들에서 떠나야 했다.

중국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가정 영역** : 인터넷과 SNS의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엄격히 감시하며 점점 더 많은 웹사이트 콘텐츠가 폐쇄를 당했다. 기독교 방송과 TV도 허가되지 않는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종교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2018년부터 다시 시작된 무신론 교육 강화 캠페인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강요 받는다.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당국에 의해 '종교가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는 곳들이 있다. 부모의 종교를 폭로하도



사진 : 중국 삼자교회 내의 애국운동 슬로건

록 압박을 받고 반종교적인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종종 크리스천 부모들을 위협한 상황에 빠뜨린다.

• **지역공동체 영역** : 전국에 걸쳐 감시가 만연하고 알려진 크리스천들은 특별감시를 받는다. 크리스천들은 지역 포럼 같은데 참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행사가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공공기관 채용에 차별을 당해 채용되기 어렵고, 일반고용주들도 크리스천을 채용하지 말도록 압력을 받는다. 크리스천 연장자들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 정부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받는다. 공무원이 어떤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그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심리를 이용해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공산당이 모든 종교문제를 관할한다. 종교를 다루는 새로운 공산당 정책으로 지역당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교회영역** :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 단속,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이제 단순히 교회의 등록/비등록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있다. 정부지침은 '교회는 모든 최근활동을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외국 크리스천의 참여나

외국 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눈에 띄는 활동을 해서 안된다. “정규” 기독교 활동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다 지켜도 당국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등록 교회들은 등록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성도수가 증가하는 가정교회들은 추가 예배장소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당국이 건물주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 때문이다. 교회의 종교적 외부행사는 허가되지 않는다. 오랜 전통의 종교적 행진 조차도 시간과 장소 참가인원 모두 제한을 받는다. 18세 미만의 교회 참석 금지는 전국에서 시행되나 특히 허난성과 간쑤성에서 엄격히 시행되었다. 2018년 4월부터 온라인 성경판매가 사실상 금지되었고, 2018년 9월 이후로 온라인 기독교자료 공유는 지방종교사무국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교 생방송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카톨릭 신부들과 삼자교회 목사들에게 이데올로기 시험을 통과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중국교회는 공산당의 압박에 직면해서 유연성을 보여왔으나 이제 교회의 어린이와 청년들에 대해 정부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교육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디어를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종교적이고 크리스천들에 대한 보도에 있어 부정적이다.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뉴스는 점점 더 접근 불가하게 되고 있다. NGO법은 국내 또는 해외 NGO 모두 종교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종교박해 관련 사법사건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은 ‘외세의 개입’으로 간주하여 차단된다.

WWL2020 중국 박해보고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0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015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1147명
공격받은 교회 수	5576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60건

WWL2020 기간 박해 사례 (2018년11월~2019년10월)

-쓰촨성 청두시의 이른비언약교회(ERCC)는 2018년 12월 주일저녁 예배 중에 정부에 등록되지 않아 ‘종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왕이 담임 목사와 사모가 함께 체포됐으며, 100명 이상의 성도들도 함께 체포되었고, 왕이 목사는 2019년 12월26일 ‘체제 전복과 불법영업’이라는 죄목으로 9년 형을 선고받았다.

-공안이나 중앙통일전선공작부에 의해 행해지는 교회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사례는 몇 달 후에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통계가 어렵다. 한 추산에 의하면, WWL2020 기간에 30,000건에 이르는 교회 공격(단속)이 있었다. 특히 허난성과 장시성에 집중되었고 허난성에서만 15,000건에 달했다.

-2019년 7월말부터 허난성 주마텐 시의 ‘참예수교회’에 대해, 중국종교사무국은 1000명을 동원해 교인 200명을 내동댕이치고 굴삭기로 교회건물을 부수었다. 교회의 전기공급은 모두 차단시켰다. 또 8명의 사역자와 교인 13명을 불법으로 감금했다. 이유는 ‘불법

으로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종교자유인권매체 Bitter Winter 보도)

-허난성 지역의 모든 교회에 '십계명'을 '시진핑 강령'으로 대체할 것을 명령했다. 2019년 9월부터, 시진핑 정부는 중국 교회에 공자사상과 기독교 진리를 뒤섞은 새 책을 배포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기초로 설교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18년에, 허난성 지역 교회 약 4,000여 곳의 십자가를 강제 철거했다. 허난성이 특히 표적이 된 이유는 많은 개신교 인구와 3대 가정교회 네트워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인구 대다수가 힘없는 농민, 노년층, 저소득층”이란 분석도 있다.

WWL2020 이후 박해 사례

2020년 1월~4월 사이에 안후이성의 루안시, 마안산시, 화이베이시, 푸양시 등에서 삼자교회 포함 250여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됐다. ‘모든 종교적 상징의 제거’가 국가정책이라는 것이다. 한 도시의 교회 지도자는, 십자가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투옥 및 교회 폐쇄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Bitter Winter는 3월 중순, 산둥과 인접한 지양수와 안후이성 동쪽에 위치한 다수의 교회에서 십자가가 철거됐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중국화’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4가지 시행수칙과 자치구의 법규를 준수하고 코로나 발발시 이미 모든 모임을 취소한 삼자교회까지도 십자가를 철거당했다. 한 지역 신자는 “정부는 전염병 당시 충분한 도움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철거에만 열을 올렸다”고 한탄했다.

-후난성 츠리현 뵈엘교회 자오 화이구오 목사는 3월 14일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되었고, 4월 2일에 범죄 혐의가 더해졌다. 교인들은 자오 목사가 교회의 국영화 및 등록을 거절한 이후 당국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2020년 부활주일에, 이른비언약교회(ERCC)가 온라인 화상예배(Zoom미팅)를 드렸다는 이유로 6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공안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이 교회는 2018년에 건물이 폐쇄당하고 담임목사가 체포된 상태로 온라인 예배모임을 이어왔다. 공안들은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 자연스럽고 대화하는 척하며 예

배에 같이 초대되었다가 설교가 나오자 온라인 예배를 중단시켰다. 또 ‘금지된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2020년 부활주일에, 중국의 칭하이성 내 삼자교회인 동후교회가 갑자기 철거를 당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권단체(China Aid)는 이에 더해 신양시 젠시구 도농건설국은 한 교회를 ‘공공안전’을 위반한 혐의로 단 2시간 만에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11월 저장성 원저우시의 룡완 학교는 공산당으로부터 “어떤 신앙도 믿지 않겠다는 교사 서약”을 받아 배포했다. 이 서식은 교사들의 서명을 요구하며, 교사가 이행해야 할 4가지 지침으로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확고히 확립할 것’, ‘무신론 교육을 강화할 것’, ‘어떤 종교도 믿지 말 것’, ‘종교 활동 참여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산당원들은 교사들에게 이 서식을 세 부씩 받아 서명하도록 요구했으며, 한 장은 보관하고 나머지 두 장은 회의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모든 서식은 작성 날짜가 11월 30일로 미리 통일되어 있었다고 한다.

중국 개신교회

중국 최초의 기독교전파 기록은 8세기의 한 비석에서 볼 수 있다. 비석에는 (네스토리안)기독교인들이 AD635년에 시안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에 명나라에 와서 기독교가 금지되었으나 로마카톨릭이 16세기에 새롭게 들어왔다. 개신교선교는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스 선교사가 마카오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됐다.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종교는 적대세력으로 탄압을 받고 특히 기독교는 외국종교로 간주되어 모든 기독교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야했다. 그리고 수십년간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다. 소위 ‘문화혁명’(1966-1976)이 일어났을 때 사회전체가 뒤집어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독교신앙을 근절시키려는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신앙은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은 지금도 왕성하게 성

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문화혁명 이후로 가장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10,400명 (0.0%)
카톨릭	10,010,000명 (9.1%)
개신교 기성교단	31,737,000명 (29.0%)
독립교단	67,816,000명 (61.9%)
무소속	21,500명 (0.0%)
이중소속	0명 (0.0%)
합계	97,200,000명(100%)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중국사역자는 오픈도어에 ‘중국교회의 어린 세대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크리스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교회의 주일학교/청소년/청년 사역방법을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박해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교회의 어린 세대 속에 믿음이 견고히 뿌리내리기를 기도해주세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상승하는 위협' -중국 사역자에게 듣다-

피니(가명)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오픈도어에 부르심을 받고 사역해왔습니다. 중국오픈도어는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피니가 전하는 중국교회가 겪은 변화와 현재 처한 상황과 비전과 필요에 대해 전합니다.

Q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박해를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는 항상 박해가 있어왔습니까? 그 박해는 어떠했습니까?

A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 1949년부터의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마오쩌둥의 중국은 무신론적이고 마르크스-레닌 사회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다른 신념 체계에 대한 관용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삼자(三自-Self)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서구와의 모든 접촉은 비판을 받았고 외국 교회와의 유대와 재정 지원은 끊겼습니다. 삼자 등록을 거부한 목회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추방되었고, 남겨진 70만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은 격렬한 민족주의와 반종교적 세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천천히 성장하여 폐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서

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적은 수로 만나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수화를 사용하고, 집 교회의 창문을 덮고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기아로 수백만 명이 숨진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기독교인들은 20년 이상 동안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교화소 상황은 끔찍했고, 중국 북부에서는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교회는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등록 교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곧 그들이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믿을 수 없는 징후와 경이로움을 통해 그분의 친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치유는 흔한 일이었고 많은 구원과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커졌고, 담대함이 커졌으며, 복음이 확

장되었습니다.

교회는 끔찍한 상황들과 끊임없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자들은 새벽 4시에 함께 만났습니다. 때로 그들은 10일, 20일, 30일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몇 시간을 보냈고 경찰이 도착하여 수색을 하고 신자들을 체포하면 창문과 뒷문을 통해 도망치거나 밤새 들판에 숨어 있는 방법에 대해 연습했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은 후 박해는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까지 교회는 1천에서 1천 5백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지하가정교회 운동으로 아주 견고 해져서, 교회를 정부 주도의 삼자애국운동 산하에 넣으려는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흥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가 농촌 가정교회들에 대해 광범위한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고 보호받는 현대의 '신약성서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들은 경이로운 속도로 세워졌습니다.

도시 교회는 특히 천안문 광장 학살사건(6월 4일 사건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알려짐) 이후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천안문 사태로 인해 많은 각성이 일어났고 잘 교육받은 중국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인터넷은 중국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었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이용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세계 지도자로서의 중국의 부상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정기적으로 목사들과 만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교회 활동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기독교 활동들만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박해는 지난 몇 년 동안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점차 19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해는 확실히 지금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Q 지난 몇 년 동안의 박해를 짧게 설명해주시겠어요?

A 중국어 표현을 사용해서 '원숭이에게 경고하기 위해 닭을 죽여라'. 즉, 나머지 교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몇 개의 교회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4/2015년에 약 1,200개의 교회에서 십자가를 허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해안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0년대 부흥이 시작된 지역과 여전히 기독교 활동의 '온상지'인 중국 중부 지방 교회 상당수가 2018년 2월 '신종교사무조례'의 강제 시행과 함께 단속에 직면했고, 삼자교회들도 모임 장소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 베이징, 광저우 및 청두에 있는 3개의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지역교회들로 하여금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도록 위협하는 방식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만약 지목된 교회들이 눈에 띄게 활동하면 증가하는 박해와 폐쇄에 직면하고 폐쇄의 소식들이 전국의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종종 들리고 있으며, 지역 교회들은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Q 교회는 이러한 박해의 증가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A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사역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이전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일부 교회들에게는 억압이 가혹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국의 수백만 개의 작은 가정교회들과 다른 미등록 교회들은 현명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이 박해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많은 가정교회의 한 가지 문제는 한두 명의 목사들에게 모든 일을 하도록 맡겨 제자훈련과 리더십 개발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이제 작은 가정교회로 모여 젊은 성도들이 짐을 나눠 질 수 있도록 소그룹 제자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도전이 됩니다. 성경 앱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부 성경 앱의 폐쇄가 때때로 들리지만 여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30대 이하의 많은 신자들은 심한 박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심한 박해의 물결에 직면한 것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픈도어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성도들에게 박해에 대한 성서적 견해를 가르치고 박해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교회 네트워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Q 2018년 2월에 시행된 '신종교사무조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규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는 산발적으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관행입니다. 새로운 법이나 계획을 시작하고 그 효과를 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 정말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일어난 일은 중국이 기존의 종교 문제 규정의 중요한 개정을 비준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새로운 힘으로 단호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당국은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않도록 교회를 보이지 않게 위협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지역 교회들이 폐쇄되었지만, 교회들은 성도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공공 영역에서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최근 한두 해 동안 엄격한 통제의 징후는 명백합니다. 미등록 교회들은 공공 영역에서 그들의 존재 공간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조례항목은 앞 기사 '박해와 선교현장'에 소개.

- 이것이 어떤 종류의 박해로 이어지나요?

- 점점 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방 정부 당국에 등록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듣습니다.
- 점점 더, 집주인들은 지방 당국으로부터 가정 교회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 표적이 된 교회에 대한 감시가 늘었습니다.
- 목사들은 때때로 모든 교회 활동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 2-3주에 한 번) 지역 경찰서에 참석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 신자들을 좌절시키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교회에 '부적절한 화재 안전장비' 등과 같은 무작위 항목으로 과도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 교회 십자가와 기독교의 상징들이 철거됩니다.
- 교회 폐쇄를 위한 단속에서 성경, 기독교 자료 및 CD가 압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대상, 실내 장식들 및 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훼손됩니다.
- 때때로, 교회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지만 대개 같은 날이나 다음날 석방되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경고 이후 '불법' 교회 활동을 계속한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Q 왜 중국은 갑자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A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민족주의도 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실패'하는 서구 민주경제보다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을 선호합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신조의 단일성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이나 다른 신념 체계의 자유를 허용 받기 보다는 '지시' 받아야 합니다...종교는 잠재적인 불안정자로 보이며 확실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종교,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를 개혁하거나 재편성할 때가 왔다고 믿는 것 같아 최근 교회에 대한 제한을 시행하겠다는 결의가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열정적인 신자로 성장하는 젊은 기독교인들의 흐름을 막기 위해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린이 교회(주일학교)와 청소년 단체, 청소년 캠프는 금지되어 있지만, 수년 동안 국가 허가 교회들과 (흔히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들은 모두 어린이들을 위해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캠프를 여는 방법들을 찾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일부 기독교 유치원들은 문을 닫았으며, 여름 캠프는 중단되거나 금지될 것을 요구받았고, 상당수의 교회들이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입구에 공식적인 표지판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아직 구입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2018년 3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인쇄된 성경이 제거되었을 때, 여전히 자체적 채널들을 통해 성경을 파는 가정교회들이 있지만, 국가가 허가한 교회 서점에서만 성경이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때로 되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온라인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다운로드를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새신자들에게 성경이 전달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성경 앱은 이용 가능합니다.

Q 중국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A 우리는 정부의 규제에 대한 반향에서부터, 비록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아왔습니다. 중국 서부에서 특정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성도들은 공원에서 만나 찬양하고 설교하고 전도지를 배포하며 거리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택했는데, 그러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활동들은 분명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역교회들은 감히 선을 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규모를 줄여 수많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사역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전할 때이며 주의를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중국의 수백만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한 주의와 경계를 가지며 눈에 띄지 않도록 교회 모임을 위해서 신자들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임대아파트에서 모여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Q 중국교회의 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교회는 대담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A 우리는 거의 1억 명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으며 몇몇 교회들은 큰 기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들도 함께 옵니다. 메가처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은 작은 시골 교회를 이끌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선교적이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기성세대는 박해를 경험했지만, 현 지도자들과 교인들 중 상당수가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시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큰 도전은 우리가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제자훈련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이 자라는 세상은 소셜미디어, 지위, 돈, 소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박해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강하게 서 있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되며, 또한 당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켜서는 안됩니다. 둘째, 우리는 다문화 선교의 마음을 가진 교회를 원합니다. 이는 중국 내 무슬림과 불교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미전도 종족에 선교사를 파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너머 다른 나라들로 복음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셋째, 중국교회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들이 교회지도자와 전도자로 준비시키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헌신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Q 이슬람교 배경 신자(MBB)와 불교 배경 신자(BBB)들과 사역에 대해 나눠주시겠어요?

A 중국 인구 90% 이상이 한족이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족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55개의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수민족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소수민족에는 여러 종교와 정령숭배들이 있지만 소수민족



대다수가 이슬람과 불교 공동체입니다. 무슬림은 2천 500만 명을 좀 넘고 불교도는 1억4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천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보다 소수의 불교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종한 이들(MBB/BBB)은 중국에서 가장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두 배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구르족 기독교인들은 위구르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며, 또 이슬람인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중국 무슬림들은 다른 나라 무슬림들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친척들을 쉽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 크리스천의 경우 몇 달 동안 방에 가두곤 했습니다. 또는, 마을에서 추방하는데 이는 가혹한 처벌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안전망도 없습니다. 서구인들과 달리 소수민족 중국인들에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보통 새신자들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나 심지어 성경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박해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다른 신념 체계에서 자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슬림 출신 신자들과 불교 출신 신자들은 기본적인 성서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역들은 단순히 이 성도들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분명한 이유로 비밀 네트워크이며, 그 중 어느 것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신뢰를 확립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기도로 격려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비밀 신자들과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특히 리더십 훈련과 상황화된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데 투자합니다.

Q 중국 내에 박해 받는 교회가 이 비전을 현실화 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A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중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오픈도어를 돕는다면 중국 교회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현실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현명하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상황화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교회들에 박해대비 훈련을 하고, 교회 지도자와 학부모를 무장시키고 자녀와 청소년을 제자화 할 뿐 아니라 다문화선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킬 것입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도어 가족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A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오픈도어의 이름이 유래한 구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족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이지만, 중국의 무슬림 배경과 불교 배경 교회들은 가장 작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들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중국의 박해 받는 교회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역을 후원해 주십시오.

중국 북서부, “아만다” 이야기 - ‘점쟁이’에서 ‘전도자’로

아만다와 남편은 주민의 99%가 무슬림인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아만다는 전업주부로 보였지만, 점쟁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무슬림 지역에서 점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슬람과 샤머니즘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만다가 ‘신통하다’는 소문이 나서 마을사람들과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에게 앞일을 점치고 문제의 해결책을 얻으러 찾아왔습니다. 아만다는 미래를 잘 알아맞히는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게 닥칠 심각한 질병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만다는 눈을 떴는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병원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고, 많은 검사를 받았지만 이 이상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겁이났어요.”라고 아만다는 말합니다. “어쩐지 신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틀림없이 신을 화나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아만다의 크리스천 언니가 성경을 주며 아만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만다는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언니가 병원에 병문안을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란다.”

그날 밤, 아만다는 자기의 일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꿈에서, 나는 택시를 타고 있었고, 바깥은 아주 캄캄했어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빛나는 광채 속에 하얀 긴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차 오른 쪽에 나타났어요. 나는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분



들은 나에게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나타날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때, 까만 긴 옷을 입은 두 남자가 택시 왼편에 나타나 있었어요. 그들은 나에게 다가오더니 나를 자기들 쪽으로 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하얀 옷을 입은 분들 쪽으로 끌어가서 나는 택시 오른편으로 나갔어요.”

“꿈을 깨자마자 나는 그 하얀 옷을 입은 분들 중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요. 나는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마비된 것이 풀렸어요. 마비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남편도 6개월 후에 비슷한 꿈을 꾸 거예요. 한밤중에 똑 같은 계시를 받고 나를 깨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물론 아만다의 ‘비즈니스’는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러 찾아오면, 아만다는, 점을 치는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자기의 ‘고객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아만다를 통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무슬림 마을에 살기 때문에 아만다는 그들에게 매우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얼마 후, 아만다의 시아버지가 그녀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만다 부부와 손주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만다는, “한번은 나갔다 왔는데 아이들 얼굴이 할아버지한테 맞아서 멍

이 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죠.”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금도 아만다의 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아만다의 시부모님은 계속 그녀를 힘들게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간에 시부모를 위해 요리와 집안일을 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아만다를 비난합니다. 손녀딸도 때렸습니다.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만다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길”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기를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 다른 집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모여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국 무슬림 마을의 유일한 성도, “압둘” 이야기-주님이 직접 위로하시다



떨시, 거부, 외로움, 이것은 압둘 형제가 일상적으로 느끼던 감정입니다. 그 속에서 압둘은 주님께 필사적

으로 부르짖었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압둘 형제는 10년 전, 일하러 외지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후 그의 무슬림 마을에서는 즉각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옥살을 들었고 친구들은 다 그를 떠났습니다. 친척들도 그를 모른 채했습니다.

“중국 북부 이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치러야하는 대가이지요.”라고 압둘은 말합니다. “여기 마을사람들은 날때부터 ‘무슬림’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물론이고 코란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지요.

코란 교사들은 우리가 선택받았으며 좋은 무슬림들이 되기 위해 신을 두려워하고 하루에 다섯번씩 기도의식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되고 술도 마시면 안된다고 가르치고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그들의 종교전통에 대한 하나의 ‘공격’으로 보고 싸워야한다고 느낍니다. 한번은 청년들 한 그룹이 압둘의 양떼를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양떼들을 언덕아래로 흩어지게 내쫓으며 ‘압둘은 이교도’라고 외치고 달아났어요. 이런 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익숙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압둘은 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도 전처럼 많이 공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있었어요.”

3일 금식 기도 속에 만난 주님

“나는 너무나도 오랜 핍박에 지쳐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했어요. 계속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냐고요. 저에게 나타나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틀째에 내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큰 바람이 들어와 나를 둘러싸고 돌았어요. 그 바람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글자 그대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바람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한번의 주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나는 그후 2년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날 그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나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웃음과 노래가 멈추질 않았어요!”

오픈도어 사역자 크리스는 올해 압둘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크리스는 우리에게 압둘 형제와 그 마을을 위

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압둘 형제의 희생적인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무슬림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주 예수님께로 나아와 구원받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가 떠나기 전, 압둘은.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의 마을에서 자기가 유일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초원에서 사는 게 좋은 점은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계속 저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같이 더 많이 교제하고 예배해요. 저는 방문객을 좋아합니다. 항상 환영입니다!

중국 MBB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무슬림 배경의 성도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서로 주님의 지체들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교제에 장벽이 있고, 중국정부의 감시와 무슬림 지역공동체의 압박으로 힘들지만 어디든지 그들을 찾아갑니다. 소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의 심방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전세계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약으로 지난 몇 달간 이러한 방문이 어려워졌지만 곧 소수민족 지역에 고립된 크리스천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정부가 기독교 활동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면서, 새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그들이 비밀신자가 되게 만듭니다. 아만다 자매와 그 가족, 무슬림 출신의 새신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담대하기를 기도해주세요. 박해의 폭풍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보호를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중앙아시아의 코로나19 구호 이야기



제베디 자매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중앙아시아에 사는 우리의 자매 제베디(Zebede)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봉쇄조치 기간 동안, 제베디는 장성한 아들의 감시 하에 지내야만 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였다. 그는 모든 가족 문제로 어머니를 책망하고, 협박하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어머니를 때렸고 성경을 찢어버렸다. 그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싫어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봉쇄조치는 제베디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 봉쇄조치 세번째 주간에,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음식꾸러미를 전해줄 수 있었다. 그녀는 꾸러미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음식 구호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어 기뻐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통한 핍박과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베디는 비밀리에 가정 모

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때로는 주일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그녀를 지키시고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낙담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아들과 손주들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그녀는 믿는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오픈도어 사역자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녀에게 교제와 격려의 시간뿐 아니라 구호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2000 가정을 위한 음식꾸러미

제베디는 코로나19 봉쇄조치 동안에 엄청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중앙아시아 성도들 중 한 명일 뿐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보고하고 있고 팬데믹은 무역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의료체계가 무너지게 하고, 투자가 곤두박질하게 하며 이런 나라들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없거나 직업을 잃고 있다. 성도들은 봉쇄조치로 다른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심각한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제베디처럼, 핍박자들과 함께 봉쇄되어 지내기도 한다.

오픈도어는 지역공동체에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지교회들을 지원하고, 성도들에게 긴급구호와 격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각국의 현지사역자들을 통해 일해오고 있다.

오픈도어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한 지역교회 팀은 음식꾸러미를 2,000 가정에 나눠줄 수 있었다. 그 교회의 리더 표트르(Pjetr)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많은 가정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때문에, 100가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2,000 가정 이상이 되었네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일부인 재정을 나눠준

사람들로 인해 가능했던 일입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픈도어가 동역하는 또 다른 교회팀은 계획을 수정하여 구호를 더 많이 진행했다. “격리와 응급상황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어린이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대가족과 수입이 적은 가족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요. 한 지역에 83가정, 약 400명에게 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교회 성도는 전했다. 음식꾸러미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아빠가 직장을 잃은 대가족,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서류도 없는 가족, 부모를 잃은 두 아이를 돕는 대가족 등을 도왔다. 긴급구호와 함께, 많은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에 대해 나누고 있다.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두 자녀를 키우는 한 카작가정을 방문했는데, 부부는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우울증이 깊었다. 하지만 우리와 이야기한 후, 그녀는 교회에 가기로 동의했다. 남편은 관심이 적어 보였지만 가만히 들었고 그 팀은 그들이 함께 교회에 가기를 바랐다.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음식 구호품과 함께 카작어로 된 성경과 아이들을 위한 책을 줄 수 있었다. 오픈도어 파트너 표트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다. “모든 가정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 듣게 되지요. 뿌려진 씨앗들이 이 분들 마음 속에서 자라기를 기도해주세요. 이런 구호품이 없다면 갈 수 없었던 곳에 우리가 갔습니다. 무슬림 가정들에게, 대가족에게, 너무 바빠 교회에 갈 시간이 없는 노동자 가족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하셨다. 한 지역에서,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수입이 적어 도움이 필요한 대가족 10가정을 위해 구호품을 구입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구호



품을 전달할 수 있는 허가는 받지 못했다. 봉쇄조치로 인해 접근제한이 있는 곳에는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국은 기꺼이 우리의 사역자들을 도왔고 체크포인트를 지나 외곽지역에 있는 가족들에게 구호식료품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경찰이 그 팀을 경호하여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

또 다른 중앙아시아 도시에서, 봉쇄조치 2개월간,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45개의 음식꾸러미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나누어 줄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연락처 정보 상당수를 한 공무원이 제공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알고 보니 크리스천이었다. 또 음식 뿐 아니라, 현지어로 쓰인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 그 공무원은 오픈도어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또 다른 도시에서는, 지역당국이 목사님들에게 가난한 가정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정은 지역당국이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오픈도어의 후원으로 교회에서 담당했다. 그렇게 해서 자녀와 장애가 있는 가난한 15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19 제한으로 대중교통이 운영하지 않는 가운데 구호품을 배달하는 여정 동안, 각 가정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택시를 부르는 것이었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역자들은 낯선 사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곧 차 한 대가 서서 그들을 태워주었다. 이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줄 수 있었다.



성경 한권의 힘

중앙아시아의 사미라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고 여섯 해 전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할머니 생신에 모인 친가 쪽 가족사진이에요.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 계시죠.” 이 사진에서 중앙아시아 대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이명이 넣어 보입니다. 사미라는 말합니다. “숙로 한 분과 그 딸인, 제 사촌 2명을 제외하고는 이 사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왔어요. 성경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언니의 전도 때문이지요.” 성경 한 권이 가져온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가! 더 놀라운 일은 이 가족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중앙아시아의 가족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용감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자기의 새로운 신앙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중앙아시아 기독교자료 후원 ➡ ‘희망의선물’ 1번 (소식지 뒷면)

- ▶ 성경/신앙서적 1권 후원 - \$ 6
- ▶ SSTs(박해대비훈련)책 1권 후원 - \$ 10
- ▶ 설교/영화 DVD 1개 후원 - \$ 10

*번역, 제작, 배포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선택	출금동의 서명
10,000₩	○5일 ○25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